

‘폐지 대란’ 조짐에 칼 빼든 정부...“수거거부 철회하라”

환경부 “오늘까지 수거거부 철회 않으면 공공수거 전환”

엄격 행정처분 경고...“폐지업계 잘못된 관행 개선”



서울 강남 등지의 폐기물 민간 처리업체들이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난 2018년과 유사한 폐기물 대란의 재현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당장 14일까지 민간업체들이 수거거부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공공수거 전환과 함께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13일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엄중히 법적 조치하겠다”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지의 폐기물 민간수거업체들은 아파트 폐지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정책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이 지난 2017년 폐골판지 등의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지는 전 세계적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고, 폐지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다. 지난 2017년 1kg당 100원

을 호가했던 폐골판지 가격은 작년 12월 65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수익성이 낮아진 폐지를 수거해 봤자, 업체들에게는 이익이 잘 나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다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수거에 들어간 기간 동안에는 공동주택 별도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송파구 등 일부 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들이 오는 14일까지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각 아파트는 수거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지자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운반된 폐지 납품을 제한

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지침까지 통보해 놓은 상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수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등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수거되는 폐지의 오염도가 심한 점도 문제를 키웠다. 안 그래도 수익성이 낮은 폐지가 오염까지 심하다 보니,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더욱 깎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간단 국내 폐지시장에서 유지된 ‘잘못된 관행’을 꼽았다.

제지사-폐지압축사-수거업체로 연결되는 거래가 계약서 없이 체결되는 탓에, 제지사는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있는 데다가, 수분 같은 이물질 함량을 어림잡아 감량하는 관행으로 인해 업체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3월까지 계약기간과 금액, 품질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상반기 안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에도 착수한다. 환경부는 실태 조사 도중 가격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폐지 공급과잉 현상이 장기화하는 경우에 대비해 저품질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들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빠한테 현금받아 건물주된 초등학교생...증여세 한푼 안 내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초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가 겸용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A군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현금 등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입자금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받아 신고누락한 탈루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에 대해 9차례에 걸쳐 2709명을 조사한 결과 4549억원의 탈루세액이 추징됐다.

주요 추정사례를 보면 30대 직장인 B씨는 고가의 아파트 2채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일명 환치기업자를 통해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B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납의무를 추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C씨는 고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자신 가진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C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의 명의로 매수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C씨의 아버지가 C씨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증여세 수납의무를 추징했다.

최근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도 이같은 탈루사례가 적발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D씨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

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D씨는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 부터 전세금과 차량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한 20대 대학생 E씨도 아버지로 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뒤 경비 처리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신세계, 작년 매출·영업이익 사상 최대

매출액 6조 돌파, 영업이익 4682억원 18%↑

신세계가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6조를 돌파했다. 영업이익도 4000억원을 넘어섰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다.

주로 면세점(DF), 신세계인터내셔널, 센트럴시티, 대구 신세계 등 자회사들이 신세계의 연결 실적에 뒷받침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의 지난해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468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액은 23.3% 늘어난 6조3937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110% 급증한 5982억원이었다.

신세계 별도 기준으로 지난해 순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줄어든 1조55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의 역시 8.3% 감소한 222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는 지난 4분기 대형점포(강남, 센트럴시티, 본점) 및 명품 위주로 고성장을 지속했으나 안전점 철수가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뉴스1

‘기생충’에 나온 ‘오미베리’ 하루 만에 주문량 10배 폭증

“PPL 아닌데 뜻밖의 대박”...“납품 해달라” 문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국내 토종 음료 ‘오미베리’가 하루 만에 주문량이 1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최초로 ‘오스카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이 전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농심 ‘짜파구리’, 하이트진로 ‘필라이트’에 이어 중소기업 제품까지 이른바 ‘기생충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회사 법인 효종원의 토종음료 브랜드 ‘오미베리 스파클링’은 전날(12일) 하루에만 주문량이 평소 대비 100% 이상 쏟아졌다.

오미베리 스파클링은 기생충에서 기정(박소담)이 박 사장(이선균)의 집에서 냉장고를 열 때 등장하는 음료다. 불과 3초 남짓 등

장하는 짧은 장면이지만, ‘저 음료는 뭐냐’는 문의가 쏟아지면서 뜻밖의 판매고로 이어졌다.

특히 오미베리 스파클링은 다른 협찬(PPL) 제품과 달리 제작진이 임의로 선정한 소품이었다. ‘의도하지 않은 대박’인 셈이다.

이원규 효종원 대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갑자기 주문이 쏟아지면서 하루 만에 재고가 동이 나자 그제야 기생충에 제품이 등장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오미베리 스파클링은 경상북도 문경에서 재배한 한약재 오미자를 브루잉(brewing) 기법으로 15시간 이상 추출해 만든 세계 최초의 상용 RTD(ready-to-drink) 스파클링 티다.

효종원은 3대에 걸쳐 문경 오미자밭을 일구면서 원재료부터 병까지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다른 건강 음료보다 생리활성물질인 ‘지단 드린’과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함유됐다.

오미베리 스파클링은 올리브영, 신세계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마켓컬리, 메이스푸드, SSG 등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만 소량 입고되는 제품이었다. 하지만 기생충을 통해 입소문이 번지면서 판로가 급격히 늘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 특성상 많은 거래처에 제품을 입고하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주문량이 많아지면서 납품 수량을 10배로 늘리겠다고거나 새로 거래를 트자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언제 물건을 보낼 수 있냐’는 현지 바이어의 문의가 들어와 추가 생산을 하고 있다”며 “잘하면 오미자가 미국에서 또 하나의 ‘K푸드’ 열풍 대열에 합류할지도 모르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뉴스1

제네시스 후원 미국 PGA 투어 ‘2020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

제네시스 브랜드가 타이틀 스폰서로 후원하는 PGA(미국프로골프협회)투어 ‘2020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데라 컨트리클럽에서 오는 13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한다.

타이거 우즈가 공식 호스트로 나서서 이번 대회는 지난해 2월 제네시스가 PGA투어, 타이거 우즈재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오픈’에서 ‘인비테이셔널’ 대회로 격상됐다.

오픈 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되지만, 인비테이셔널 대회는 주최 측이 상급

랭킹 상위 그룹, 역대 대회 우승자 등 일정 기준에 의해 초청한 선수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

상급 규모는 격상된 대회 위상에 걸맞게 총상금 930만 달러, 우승 상금 약 167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는 PGA투어 통산 최다승 기록 보유자 타이거 우즈와 현 세계 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 전년도 우승자인 제이비 흄즈 등을 포함해 초청된 120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한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상금 외 부



상으로 PGA투어 대회 3년 출전권과 GV80 1대를 제공한다. 14번 홀과 16번 홀에서 출현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각각 GV80과 G70가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이동과 대회 운영을 위해 GV80, G70, G80, G80 스포츠, G90 등 차량 24대를 지원한다.

뉴스1

‘기생충 효과’ 바른손 3거래일 연속 상한가

‘아카데미 4관왕’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 바른손이앤에이와 자회사 바른손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2일 코스닥시장에서 기생충 제작사인 바른손이앤에이는 가격제한폭인 880원(29.98%) 오른 3815원으로 마감했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부터 3거래일간 주가가 2000원에서 3815원으로 90.7% 급등했다.

바른손이앤에이의 자회사인 바른손도 1020원(29.87%) 오른 4435원으로 마쳐며 사흘 연속 상한가 행진을 보였다. 3거래일 동안 주가는 2025원에서 4435원으로 119% 치솟았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라면 ‘짜파구리’ 주재료인 짜파게티와 너구리의 제조사 농심도 4.88% 올랐다. 농심은 전날에도 4.46% 상승했다. 3거래일간 주가가 23만 2500원에서 25만 8000원으로 10.9% 올랐다.

다만 기생충의 투자와 배급을 맡은 CJ ENM은 전날에는 3.03% 상승했으나 이날은 0.92% 하락 마감했다. CJ ENM은 3거래일간 주가가 총 4.4% 올랐다.



기생충 출연진과 감독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늘어난 만큼 콘텐츠 관련주의 수혜 전망이 나온다. 한상용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K-콘텐츠는 드라마가 성장의 주축이었으나 이번 아카데미 수상을 통해 미국에서 K-영화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한국 콘텐츠의 성장 모멘텀은 무궁무진하며 국내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소식이 전해진 5월에는 바른손이앤에이는 60% 상승하며 3105원까지 올랐으나 약 한달 뒤인 6월 28일 종가는 황금종려상 수상 이전 수준을 밑돌았다.